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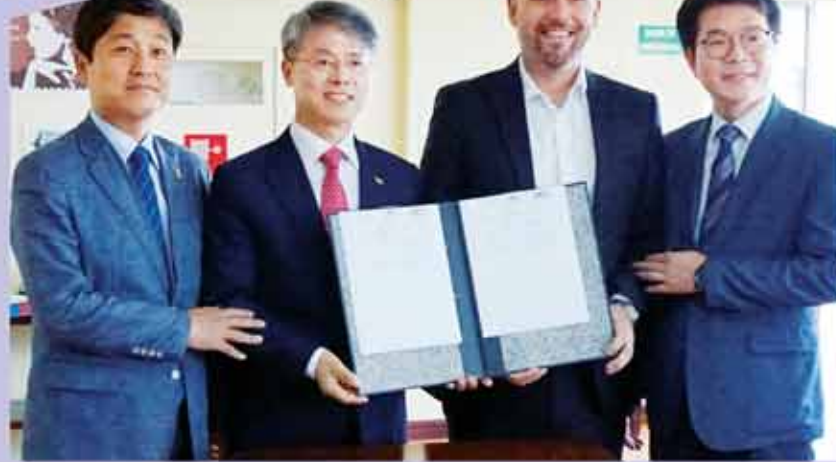
“민 주도·官 지원...광산구형 경제모델 일자리 창출 효과”

민형배 구청장 ILO 주최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패널 참석

유럽·아프리카 등 국내외 전문가 250여명 참여 정보 공유
“지방정부 자율성 활용하면 좋은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와 ILO가 주최한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에 참석해 유럽, 아시아 활동가들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코스타리카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정을 지난달 6일 체결했다.



광산구는 광주여대 등과 손잡고 2017년 병원아동보호사 양성에 돌입했다. 지난 6월 19일 개최한 교육 개강식.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세계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에서였다. 서울특별시와 ILO가 공동 주최한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 행사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내외 전문가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민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아카데미 패널로 초대받았다.

캐나다 컵커피 대학 마켓 멘델 교수,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 지안루카 살바토리 대표, 김정열 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정책협의회 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이슈는 공공정책 영향과 사회적경제의 상관관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나가 핵심이었다.

민 구청장은 “시민주도의 자치와 민주주의 체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공공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국가 체제와 자치 체계가 잘 조화를 이뤄 사회적경제의 요구를 제도가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의 원칙으로 민 구청장은 ‘팔거리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정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진다”며 “사회적경제 기반과 생태계를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정책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정책의 팔거리 원칙 성공 사례로 민 구청장은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소개했다.

민 구청장은 “정치가 시민의 네트워크에 개입하면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광산구는 관이 통제하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필요를 충족해 가는 활동을 돕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청소년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세운 ‘클린광산 협동조합’을 예로 들며 시민과 지방정부의 연대로 사회적경제를 일구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민주주의 체제도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활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시도했다”며 “구와 계약을 맺었던 청소년위탁업체에 문제가 발생해 그곳 노동자들이 구성된 클린광산 협동조합과 일을 시작해 해고 걱정 없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체계가 자리 잡으면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도 마련할 수 있다”며 “국가나 민간기업이 하지 못했던 일을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향식 민주주의 체계라고 밝혔다.

상향식 민주주의가 정착한 지역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을 현장의 요구로 이끌어낸다는 의미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양자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아카데미는 ILO가 제시한 13개 질문에 대한 객관식 문항을 참석자들이 전자기기로 선택하고, 패널들은 답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ILO는 주요 의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Agenda)’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전 분야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2010년부터 세계 도시를 순회하며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아카데미는 ILO와 서울시가 주최하고,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GSEF),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주관해 26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된다.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가 아시아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사회적경제 활성화’ 코스타리카로 확장

정책 벤치마킹·상품 등 교류 협약
루이스대통령 “文대통령 방문 환영”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을 향해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행보를 해외로 넓히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코스타리카 정부와 사회적경제 강화협정을 지난달 6일 맺은 것. 민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자체장들과 함께 5월 25일부터 9일 일정으로 쿠바와 코스타리카를 방문했다.

협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연대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류, 각 기관의 국제회의 지원, 사회적기업 정보 공유, 정책 벤치마킹과 상품 교류 등이다.

협정 당사자는 코스타리카 사회보장노동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민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앞서 방문단은 코스타리카 대통령

궁에서 영부인 메르세데스 베냐스 도밍고 여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영부인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

영부인은 민 구청장 등 방문단에게 “지자체 사업에 참여권만 있던 시민에게 결정권도 부여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담회장에는 루이스 기에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다.

그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한국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지 바란다”고 희망했다.

민 구청장이 “이 나라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메시지”를 당부하자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양국은 수십 년 동안 국가간 협력을 추구하며 민주주의, 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F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전문점, 대형전시장

2~5F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F 743㎡ 전문병원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